

# 은행

산업이슈 브리프 |

## Check Point

- 12월 계절적 영향으로 은행권 대출 감소
- 23년 대출성장률 5.1% (정책모기지 포함)
- 주택대출 수요둔화와 스트레스 DSR, 회사채시장 정상화 영향으로 24년 대출성장 정체 예상

## 12월 여수신동향: 연말 계절적 영향으로 대출 감소, 24년 대출성장률 정체 예상

Analyst 전배승 \_ bsjun@ebest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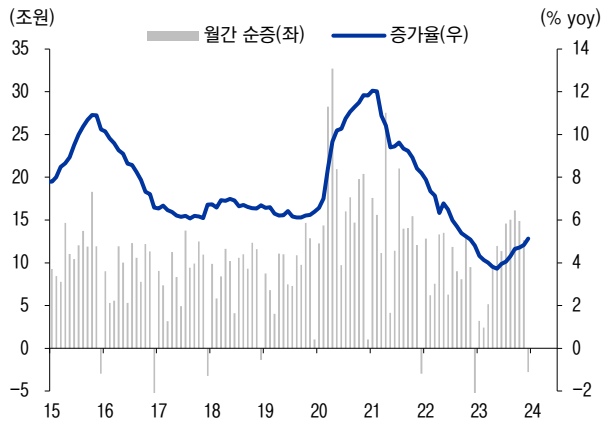
### 연말 계절적 영향으로 은행권 대출 감소

- ▶ 12월 예금은행 총대출(정책모기지를 포함)은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11월 대비 2.8조원 감소(-0.1%, MoM). 기업대출의 경우 연말 부실 채권 상매각과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대출상환으로 12월 중 5.9조원이 감소. 가계대출은 주택대출 증가 폭이 둔화되고 연말 상여금 유입으로 기타대출이 감소하면서 3.1조원 증가에 그쳐 총 대출이 2.8조원 감소함
- ▶ 가계 주담대는 12월 중 5.2조원 증가해 10~11월 평균 +5.7조원에 비해 증가 폭이 소폭 둔화. 주택매매 및 전세대출 수요 부진에도 주담대 감소 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분양 및 입주관련 중도금대출과 집담대출 영향
- ▶ 기업대출의 경우 연말 영향으로 12월 중 5.9조원 감소했는데 22년 12월에는 -9.4조원, 21년 12월은 -2.8조원으로 매년 말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남
- ▶ 수신부문에서는 결제성예금의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일단락되고 있으며 고금리예금의 증가율은 둔화. 향후 금리하락 기조가 이어질 경우 결제성예금 증가세 전환이 가능할 전망

### 24년 대출성장률 정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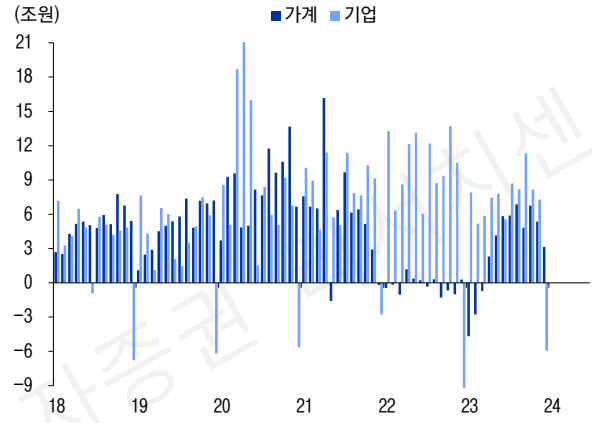
- ▶ 23년 연간 은행권 총대출 증가율(정책모기지 포함 기준)은 5.1%를 기록해 22년의 4.8%에 비해 소폭 상승. 정책모기지 제외 기준으로는 4.5%수준 추정.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6.6%, 3.5%를 기록했는데, 가계대출이 22년의 -0.2%대비 증가하면서 총대출 증가율이 소폭 확대됨
- ▶ 2024년 대출증가율은 4.5% 내외로 23년과 유사한 수준 전망. 주택거래 관련 자금수요 둔화와 입주물량 감소 영향에다 스트레스 DSR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강화 정책기조가 예상되어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 기업대출의 경우도 금리안정과 함께 회사채시장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은행대출 의존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정체흐름 전망

그림1 일반은행 총대출(정책모기지 포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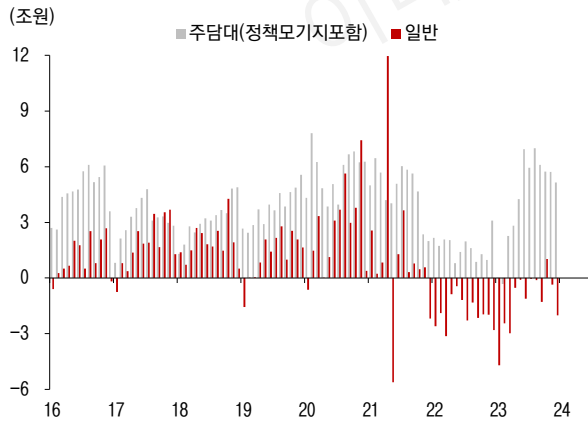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월간 순증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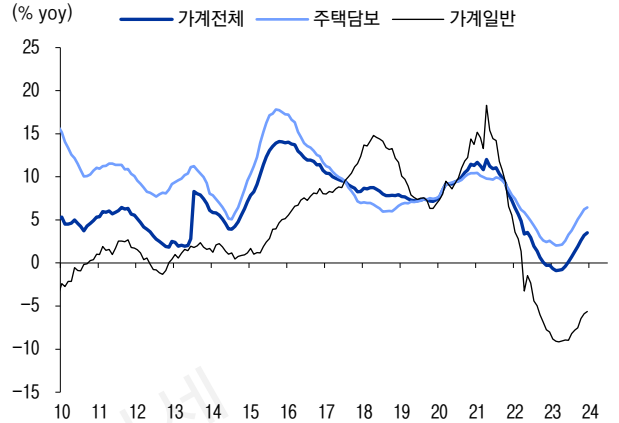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가계대출 부문별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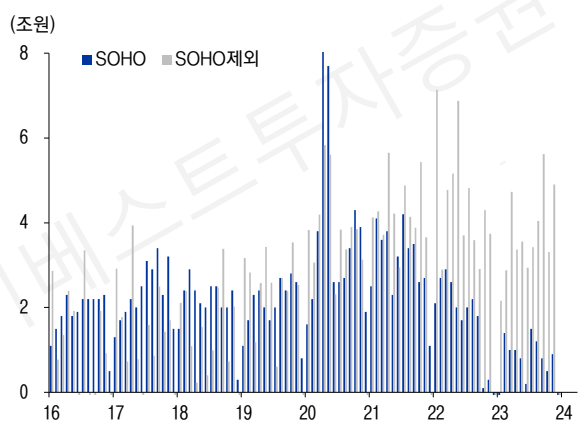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가계대출 부문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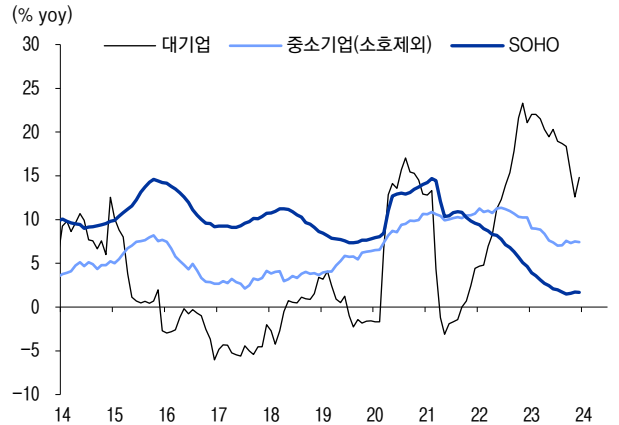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중소기업대출 부문별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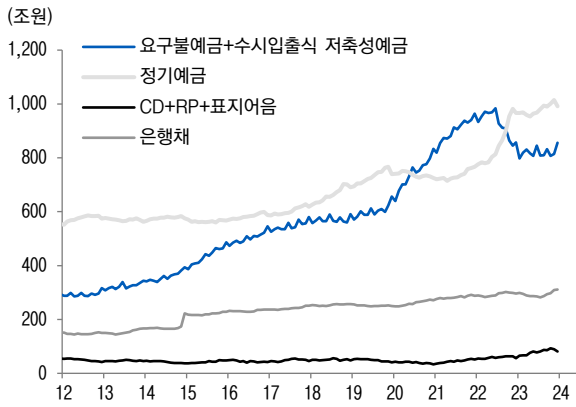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기업대출 부문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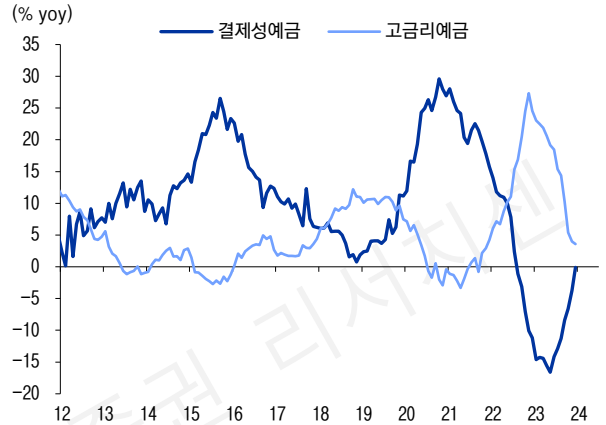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총수신 추이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부문별 수신 증가율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b>Sector</b>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Overweight</b> (비중확대) <b>Neutral</b> (중립) <b>Underweight</b> (비중축소)			
<b>Company</b>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Buy</b> (매수) <b>Hold</b> (보유) <b>Sell</b> (매도) <b>합계</b>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1.6% 8.4%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b>100.0%</b>	투자의견 비율은 2023. 1. 1 ~ 2023.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